

# 순천시, 국가유산청 출범 맞춰 '국가유산 활용' 본격화

### 국가유산 170점 ... '법정스님 의자' 등 8건 근현대 유산 추천 8월 '문화유산 야행'·10월 한 달간 선암사 등서 '세계유산축전'

순천시가 근현대 문화유산 지정에 8건을 추천하고 8월 '문화유산 야행'과 10월 '세계유산축전'을 잇따라 열며 '국가유산 활용' 활성화에 나선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시행한 국가유산 기본법에 따라 순천시지역에는 170점의 국가유산이 지정됐다. 순천 송광사 목조삼존불감·송광사 국사전·송광사 화엄경변상도, 혜심 고산저서 등 국보 5점과 보물 52점, 사적지 5곳, 명승 3곳, 천연기념물 3점, 국가민속문화유산 10점 등이 있다. 국가 지정 문화유산 78점과 전남도 지정·향토 유산을 더하면 170점의 국가유산이 순천 곳곳에 있다.

보물인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팔상도는 국보로 승격될 예정이다. 국가유산 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됐다. 문화재 제도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한다. 지난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그간 확장된 문화재 정책 범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받아 왔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제와 달라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5월 16일 '국가유산 기본법'을 제정했다.

국가유산 기본법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명칭을 변경 확정한다. 유형문화재는 '문화유산', 명승·천연기념물 등은 '자연유산',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한다. 이들 유산은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고,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이란 용어를 채택했다.

순천시는 국가유산 기본법 시행에 앞서 자치법규상의 '문화재'란 용어와 수정된 법률명 등을 문화재청이 제시한 분류체계에 맞춰 정비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지역에 있는 국가유산이 미래세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활용할 방침이다. 순천시는 '순천시 국가유산 정밀지표조사·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그동안 보존·보호·규제에만 치우친 정책 방향을 개선할 계획이다.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잠재적 유산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 예정이다.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순천시는 오는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국가유산을 시민·관광객과 함께 즐기는 '문화유산 야행'을 진행한다. 한 여름밤에 펼쳐지는 '문화유산 야행'은 '문화유산과 건축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순천시가 근현대 예비 문화유산 추천 목록으로 국가유산청에 제출한 '법정스님의 삐삐용 의자'(왼쪽)와 '최초의 한국형 구급차'.



순천 문화의 거리와 옥천면 일대는 야간 경관조명과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빛의 거리'로 탈바꿈한다. 이곳에서는 문화유산 해설가와 원도심과 문화유산 건축물을 탐방할 수 있다. 방문객들은 건축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보고, 전문가 초청 강연, 길거리 공연, 낭만 캠핑 등 다양한 행사를 즐기게 된다. 오는 10월 한 달 동안에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선암사와 순천갯벌에서 '세계유산축전'을 진행한다. 올해 행사는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순천 그린광장까지 장소를 넓힐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순천 생태를 관찰하며 주변 쓰레기를 줍는 '프레서스 킵'에 동참하고, 산사 음식 맛보기, 공존 토크콘서트 등을

즐긴다. 순천시는 국가유산 활용 문화행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순천시는 국가유산청에 8건의 근현대 예비 문화유산 추천 목록을 제출했다. 이는 오는 9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도입하는 '근현대 예비 문화유산 보호제도'에 대응하는 조치다. 만들어진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 시기 유산을 보호하고, 미래 유산을 발굴하기 위한 제도다. 순천에서는 무소유의 가르침을 남긴 법정스님의

'삐삐용 의자',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한국형 구급차', 순천씨족 원류와 향촌사회 연구의 중요 사료가 되는 '순천씨족보',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학도병 유물' 등 8건이 근현대 예비 문화유산 추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김형준 순천시 문화유산과 주무관은 "지난 2월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와 팔상도의 국보 승격 소식이 들려 곁경사를 맞았다"며 "순천의 근현대 시대상을 담은 8건의 물품이 역사적·문화적·기념적 가치를 인정받아 예비 문화유산으로 거듭나면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광양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시민 문화공간 '중마교역소' 본격 운영

### 개관 기획전 '여정' 공예 작품 전시

광양시 마동저수지 생태공원에 시민 문화공간인 '중마교역소'가 2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광양문화도시센터는 마동저수지 생태공원에 각종 전시와 체험, 임시 판매 공간(팝업스토어)이 들어선 '중마교역소'를 상시 운영한다. 이 공간은 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가 기증한 컨테이너를 탈바꿈해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체험 행사와 시민 대관 위주로 공간을 운영해왔다. 올해는 작가 전시와 판매 공간을 대폭 늘렸다. 개관 기획전으로는 냇터켓 바스켓 전시 '여정'이 진행되고 있다. 여수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조진아 작가가 '냇터켓'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공예 작품을 전시한다. 이 밖에도 가상현실(VR) 체험과 웹툰 원화 전시, 캐릭터 모형인형 전시 등도 열릴 예정이다. 시민들은 입체 책 제작, 재활용 유리잔 공예, 차(茶) 체험 등 일일 강좌에 참여할 수 있다. 시민 공간 대관도 진행한다. 중마교역소 대관 문의나 행사 상세 정보, 참여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중마교역소'에서 공예 작품 전시가 열리고 있다. <광양시 제공>

방법 등 관련 궁금한 점은 광양문화도시센터(061-761-0701)로 문의하면 된다. 박시훈 광양문화도시센터장은 "마동저수지 생태공원은 도심 속 자연으로 시민들의 대표 힐링 공간"이라며 "그곳에 자리한 중마교역소 또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고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수산물까지 확대

고흥군이 농산물에 한정된 가격안정기금을 수산물까지 확대·지원한다. 과잉 생산된 농수산물의 출하량 조절을 위한 수매·저장 비용으로 기금을 사용한다.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가격 유지와 생산 농·어가 보호를 위한 것으로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과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산물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한 어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56억원을 조성·운용 중이며 2027년까지 1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확대 운영은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농수산업 종사자 소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 순천역 새 랜드마크 '생태비즈니스센터' 개소

### 전시실·도시재생센터 등 운영 시작

순천역 인근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한 생태비즈니스센터가 문을 열었다. <사진> 생태비즈니스센터는 연면적 3905㎡(12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19년 토지 보상을 시작해 2023년 11월 준공됐다. 생태비즈니스센터는 순천역 역세권에 새로운 건축물과 미래 혁신적인 내부 공간으로 채워졌다. 1층은 역세권 마을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

카페와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전시실, 세미나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했다. 2층은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12개 기업과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가 입주해 있다. 또 3층은 150여 명이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컨퍼런스홀과 바이오 실험실이 운영된다. 옥상은 순천의 국가하천인 동천과 시가지지를 조망할 수 있어 시민들과 방문객에게 인기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차 공간은 지하에 마련됐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광양 백운제테마공원 물체험장 운영 기간 확대

### 7월 23일~8월 17일 27일간 운영

광양시가 봉강면 봉당리 백운제테마공원 물체험장 운영 기간을 확대한다. 물체험장은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17일까지 27일간 운영할 예정이다. 성인·청소년용 물놀이풀 어린이풀 유아풀 등 총 4개의 물체험장과 정자 샤워실 화장실 잔디광장이 갖춰져 있다. 입장료는 연령과 관내 관외 거주에 따라 차등적

용된다. 관내 기준 2~12세 1000원, 13세 이상 2000원이며, 관외 기준 2~12세 2000원, 13세 이상 4000원이다. 시는 물체험장 방수공사를 하고 배수로를 신설하는 등 시설을 보강했으며 자동 염소 투입 장치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김재신 광양시 공원과장은 "시설 안전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전문 위탁업체를 선정해 운영 인력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전남 다문화가정 청년 150명 넘치는 꿈과 끼 발산

### 순천시 '음악 함께하는 숲속캠프'

순천과 여수·무안·광주 등지에서 온 다문화 가정 청년 150여 명이 순천 숲속에 모여 끼를 마음껏 발휘했다. 사단법인 다문화종합복지센터 순천시지부 주최, 비영리민간단체 참누리·청해다문화센터 주관 '3회 음악과 함께하는 다문화 숲속캠프'가 지난 18일 순천시 상사면 초곡리 포레스트152 캠퍼지에서 열렸다. 3시간에 진행한 숲속캠프는 1부 개회식, 2부 음악회, 3부 바비큐 파티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8만㎡ 규모로 펼쳐진 편백숲에서 음악회와 바비큐 잔치 등을 즐겼다. 다문화 청년 정대철씨, 양아선씨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본격적인 음악의 향연이 펼쳐졌다. 일본, 필리핀 출신 어머니와 함께 부르는 무대와 퓨전 장구 난타, 트로트, 춤 공연 등이 이어졌다.



'다문화 숲속캠프'에 참가한 다문화 가정 청년들이 끼를 뽐내고 있다.

김형진 청해다문화센터장은 "이번 숲속캠프는 숲속의 맑은 공기와 함께 음악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꾸렸다"며 "세계화 시대 주

역인 다문화 청년들이 화합과 평화의 가교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29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 불법 환전·결제 거부 등 점검

여수시가 20일부터 29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대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한국조폐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 거래 데이터와 불법 거래 의심

사실 신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전 분석 후 현장 점검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상품권 유통 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지류형 상품권'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시는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조치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조용연 여수시 지역경제과장은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